

대림 제3주일

기도서 P. 216 A해

제1독서(이 사 35, 1-6, 10)
제2독서(야 고 5, 7-10)
복 음(마 태 11, 2-11)

숲 정 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봉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권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 감 론



내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박 성 팔 신부

남의 시체를 넘고 입신양명 하려는 녀석들, 하나님의 분노와 복수를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는 녀석들, 이들 모두를 위해 곡(哭)한다. 이들은 인간적인 것에 모든 걸 희망하고 거친 악마의 몸짓으로 뒤편 거뜰히 해치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음흉스럽고 상냥스럽기까지 하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일까? 아니다 오히려 속으로 “하느님 이라고... 흥! 십자가에서 한번 대려와 보시라지, 그러면 믿을테니까?” 하며 빈정대는 자들이다.

오늘을 사는 세례자 요한과 유대인들, 니들이 품고 있는 생각은 언젠가 끝장을 보고야 말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니들이 품고 있는 생각을 “내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한마디로 일축해 버렸기 때문이다.

아직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뭘 주저한단 말이나?

예수님의 뱃세지를 거부하기 위해 폭력까지 휘두르는 녀석들... 사랑때문에 폭력이 이기도록 자신을 버려두신 “십자가의 치욕” 이것이 실패처럼 보이냐? 그렇다면 니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죽음과 부활을 포함한 주님의 강생을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손을 펴서 상처를 아물게 하고 굶주린 이들을 배불리고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작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하라.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작으려나도 하늘나라에서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내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마태 11, 6)

<중앙성당 보좌신부>



바보들의 행진

텔레비전을 흔히 「바보상자」라고 말한다. 전파 미디어는 원래가 「일방통행적」이다. 스위치를 끄지 않는 한 지켜리는 소리나 그림을 보아야 한다.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반론을 제기할 여유가 없다. 있다면, 사후에 전화나 편지로 한 마디 하는 수 밖에 없다. 또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방영(放映)하거나 방송해대면 어느 정도 세뇌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기업체들은 수많은 돈을 들여 광고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면, 까딱 잘못하면 시청자들은 그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보가 되고 마는 것이다.

문명의 이기인 텔레비전을 비난하거나 헐뜯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가족들끼리의 대화도 단절시켜 버리는 것이 텔레비전이다. 깊은 사고(思考)나 신중한 판단을 하기 보다는, 소위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정보’에 자신을 내맡겨버리게 하는 것이 텔레비전이다. 어쩌다 보면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마음을 갖게할 수 있는 것도 텔레비전이다.

칼라 텔레비전이 나오게 되어 조금은 생동감있는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열살을 피우던 백성들이 어쩌나 극성을 떨었던지 값이 조금 싼(?) 소형 텔레비전은 바닥이 났다고 한다. 비싼 돈을 들여야 하는 칼라 방영을 허락해준 당국의 처사가 불황이라는 전자업체에 송통을 터주었다. 그런가 하면, 칼라 텔레비전을 당장 구할 수 없는 서민들은 하루 아침에 2등국민(?)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국영방송이 시청료를 받으면서도 앞으로는 상업방송을 한다고 한다. 이해가 잘 안된다. 또, 상업 방송국의 대주주로 한국 방송공사가 등장했다.

숲 정 이 산책



「피교리 같았다」

<성당 · 성지순례기>

美國에서 만난 恩人(7)

부주교 김스테파노

나의 이번 여행의 마지막 보람스러웠던 일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나의 은인을 만나는 일이었다.

워싱턴에서 이곳까지 비행기로 6시간 걸렸는데, 아메리카 대륙이 얼마나 넓은가는 조그마한 나라에 사는 우리로서는 추측하기가 좀 어려운 일이다.

내가 한국에 빨리 돌아 와야 할 이유가 없었더라면 틀림없이 고속버스를 타고 주야 8일동안 아메리카 대륙을 횡단했으리라.

나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리자 바로 골든게이트(金門橋)로 달리며 택시 안에서 한때 유행했던 -블러라 샌프란시스코야 태평양 로맨스야-를 콧노래로 흥얼거렸다. 나는 이곳에서 만나기로 약속된 은인을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벅차 올랐다.

나와 블라이 여사와는 대신학생때 학교에서 맺어준 은인이다. 그는 내가 신부 될때까지 장학비를 보내주었고, 크리스마스 카드나 편지를 통하여 나의 사제 성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아마 지금까지 계속 영어 공부를 해온 것도 이 은인을 만나기 위한 소망이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사진으로만 서로 얼굴을 알 뿐이었지만, 겹겹 옷에 로만 칼라를 한 사람은 나 하나 뿐이었기에 상면하는 즉시 서로 알아채었다. 그녀는 내가 약속을 청하는 것만으로는 아쉬운 모양이다. 금발 포옹이라도 할 뜻이 보였지만, 역시 습관이 무섭더라. 블라이 여사는 올해 59세, 회갑잔치를 한국에서 하자 했더니, 단일 민족끼리 사는 한국을 그렇게 부러워 하더라.

나는 은인의 고향, 사크라멘토에서 로스엔젤레스까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미국의 농장을 볼 수 있었다. 발한 고랑 같고 셋거리를 벅는 다는 고무풍선 같은 옛이야기가 단순한 허풍만이 아니더라.

내가 헐리웃에서 세계 유명 배우들이 길바닥에 손자속 싸인 한것을 보고 있노라니, 각마른 금발 미녀가 손을 끌으면서 얼른 듣기로 "Where will we go" 하더라. 이런 유명지에서 꼬임을 받았다는 것을 교포 한분에게 자랑삼아 이야기 했더니만, 금발은 검은 머리를 좋아한다 하더라.

나는 한국으로 오면서 화와이에 내려 이틀을 묵으면서 와이키키 해수욕장, 민속촌의 홀라춤 등 야자수 그늘 밑을 거닐면서 남태평양의 정경으로 흠뻑 젖어버렸다.

지난 9월 15일 오전 10시에 김포공항에 도착하니, 주교님 차로 김준호 신부님이 바양나와 코마였다.

태양을 팔아 세계를 한바퀴 돌고나니 내 시계는 14일자로 하루가 늦어 있어, 내 생일이 석가탄일과 같아져 버렸다.

이 대림(장림) 시기에 무엇을 회개 하여야 하는가?

김 병 엽 신부

남원 본당에서 사목생활을 하고 있을 때, 열(순창) 본당을 일년에서 1주일 모자라게 본당을 겸해서 책임을 지고 있었다.

어느날 미사가 끝나고 남원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30미터 앞 벽돌 담에 가위가 그려져 있는 낙서를 보았다. "이곳에 소변을 보는 사람은 XX" 이라고 흘러 내리는 글씨가 제대로 규격도 맞지 않게 쓰여 있었다. 담 바로 뒤편에는 그집 안방문이 있어 여름에 방문을 열어 놓으면 얼마나 냄새가 코를 찌를까 생각하니 그러한 글이 쓰여지기까지 애로를 알만 했다. 왜 사람들은 30미터만 가면 변소가 있는데, 이곳에 꼭... 해서 그 집 사람을 괴롭혔을까?

우리 사회의 주변에서는 이러한 예가 많다.

영화관 스크린 옆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5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는 경고문이 쓰여 있는데도 담배를 피워 스크린을 흐려 놓고 열 사람을 매움게 한다. 자기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행동이 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세상을 살면서 열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형성된 성격때문일 것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는 무한대의 자유를 누리려 하는 욕망이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사람으로 부터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로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자유라는 참 뜻은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란 사욕·편정이 있어서 자기가 자기를 정의에 맞지 않게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그 무엇인가 악의 경향으로 무한에 가까운 곳으로 흘러 내리, 동물이하로 격하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대림(장림) 시기를 맞이하였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자자의 포효같이 외친다. "회개하라"고 과연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 생각, 말, 행동 다름이가 싫어하는 것들을 고쳐야 하겠다. 아침 잠에서 깨어 저녁 잠자리에 들때까지 우리 행위를 성실하고 책임 있게 사랑으로 해야 하겠다.

작년에도 대림시기는 지났었고, 금년에는 또 맞이 하였다. 그러나 내년엔 내가 또 이 회개하는 대림시기가 온다는 보장은 없다.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열면 백년의 탄생을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전통 천주교회 주임신부>

三星物産 전주 특약점



위크엔드 Weekend



버킹검 Buckingham



맥그리거 McGREGOR

주니어·아동복

전주시 중앙동 3가 96-2 삼화약국 옆
전화 ④ 4 4 5 1 유물리안나

행복의 전당

행운예식장

김제군 김제읍 요촌리 2구 217번지

전화 2317

대표이장 근(이냐시오)

「눈물겨운 이 노력에…」

-12월 7일, 원평 새 성당 신축 기공식을 보고…

“주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벽돌 한장 한장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쌓으십시오. 여러분의 애타는 정성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원평 쌍룡벌에 우뚝 솟아날 새 성전의 신축을 위해 첫 삽이 떠지던 날, 주교님의 말씀은 쌀쌀한 겨울 바람 끝을 녹이는 따스한 용기의 말씀이었다.

넓은 마당에 둘러 모인 신자들과 함께 이제 세워질 새 성전의 터가 되는 땅에는 새하얀 봉태가 산뜻이 감겨진 삽이 꽂혀져 있었다. 이곳 가난한 신자들의 소망이 매듭지어지는 날. 새로 지어질 성당의 시작을 위해 첫 삽을 뜨시는 주교님의 모습을 보는 모두가 눈물 글썽이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 희망을 가득 떠서 주님께 드리는 모습이였다. 이날을 위한 애탄 기다림이 얼마나 길었었던가, 약 1억원이라는 거액(?)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 놀람이 없는 액수이지만, 100여명의 아담한 성전에 30여명의 사제관을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삭 들듯 모두는 정성의 모퉁이 될 것이다. 그동안 본당 신부님을 중심으로 이병선(성전건립 추진위원장) 회장님과 이곳 모든 신자들은 이날을 위해 두 해 전 땅콩농사로부터 시작해서 푼푼히 아낀 성금 2,600여만원을 본당 자체에서 신립, 마련하고 여기저기서 작은 정성의 은인들의 고마움들이 있었다. 멀리 외국의 가난한 노동자들까지도 푼푼히 아낀 성금을 기꺼이 보내오기도 했다. 특히 본당 신부님의 교구동창 신부님들도 배월 조금씩 적금을 넣기로 하고 100만원이라는 큰 용기를 주었다. 이런 애타는 노력을 기쁘게 보신 주교님께서도 특별히 교황청의 도움을 마련해 주심으로 어깨를 두드리는 용기와 기쁨의 희망을 주셨다. 내년 8월중, 완공을 위한 앞길은 아직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너무도 많지만, 이런 따스한 손길들에 용기를 얻은 신자들은 드디어 이 날을 마련하고 첫 삽질을 시작한 것이다.

“새 성당 건축을 시작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이자리에 모인 당산 자녀들을 자비로이 굽어 보시고…, 주교님의 마지막 기도에 같이하신 부주교님, 권리국장 신부님, 지구장 신부님, 그리고 여러 신부님들과 신자들은 희망이 더욱 부풀었다.

어려운 일을 시작하려는 원평본당 신자들에게 뜨거운 성원을 보내자, 그리고 내년 봄에도 성당 빈터에 고추도 심고, 땅콩도 심고…… 해서 조금씩이라도 기금을 계속 만들 계획이라는 본당 신부님과 신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에 우리-“외면하지 말자.” (주노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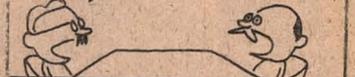
(축)

기 공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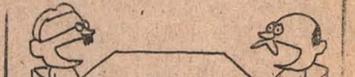
* 원평본당의 발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병오 (384)

윤새 우리나라에 만일정당이 몇개 된다고요?
정당하나 못만들면 큰병신 같아요



우리도 정당하나 만듭시다
당이름을 무어라 할까요?



국민이외가 좋은 이름이 없을까?
좋은 이름이 있오!



개 백 다 구 당!



□정화 미용학원 학생모집□

윤 경 미 장 원

최윤경 미용실 (신부화장 및 드레스)

이리시 창인동 구 역전 앞 최 윤 경(유리안나) 전화 ③8653

개인지도식 교습-학생부. 성인부
제일 주산 경리학원
교재 무료배부. 시간은 자유로 정합
위치: 한국은행 앞 전화 ① 3132
원장 성 달 응(안드레아)

건축용페인트, 기와용락카, 카-슈칠, 호마이카, 락카, 접착제, 청단 안료, 왁스, 금분, 은분, 가구제료 도장공사 청부(상담)
현대 페인 트 사
청자표 현대페인트(주)
전 주 직 매 점
주 오영원(바오로)·김영환(아오스당)
전동 2가69(성모병원앞) ②2377번

직원 채용 공고

1. 모집부분: 일반(사무)직 약간명
2. 응시자격: 가. 만30세 이하의 남자로서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 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
3. 제출서류: 가. 자필이력서 나. 졸업증명서 다. 성적증명서 라. 병적증명서 마. 주민등록등본 바. 기타 자격증 사본 각 1통
4. 접수기간: 80.12.12~12.26 17시
5. 접수처: 당조합총무과 ①0191~4
6. 전형방법: 가. 제1차(필기): 상식 논문 주산 나. 제2차(면접): 1차합격자에한함
7. 전형일시: 가. 1차 필기: 80.12.27(토) 14시 나. 2차 면접: 80.12.30(화) 14시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조합 총무과에 문의 바람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양 윤 모

□ 81년도 원아모집 □
성 체 유 치 원
입학자격: 만 5세~6세 까지
모집인원: 남·여 80명 (2학급)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80년 12월 1일~12월 20일
1980년 12월 20일 오후 4시까지
연락: 노송동 수녀원내 ☎ ③8408

□생화·각종 화분·신부부케 전문대립절 및 성탄절 꽃꽂이 솜대 있음
※교우여러분께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진 선 미 꽃 집
전주국장 골목 전화 ③ 2628
범 락도(덕배)·이 마리아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꾸르실로 소식**...여성 제9차 81년 1월6일~9일, 남성 제14차 1월 12일~15일, 여성제10차 1월19일~22일, 남성 제15차 1월 26일~29일, 각각 있습니다 각 본당에서는 2명씩 추천 준비 바랍니다
 2. **대학생 화요미사 안내**...매주 (화) 오후 5시 30분, 덕진 가톨릭 학생회관에서
※ 잠시 중단되었던 화요미사가 실시됩니다.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람
- **치명탑 원고모집**...12월 5일 원고 마감 예정일을 원고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20일까지 연기하오니 많은 참석 바람이며, 각 본당 학생회장님은 3편 이상씩 기일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중·고등학생 신자 및 예비자, 제목-자유, 부문-시, 소설, 수필, 기행문, 서간문, 기타
보내실 곳-520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중·고연합회 앞

(중앙)

전화 ③3651
③3874

주임	신부	문정기	현봉팔
보좌	신부	정성범	
보좌	신부	박길	
사도	회장	김	부

② 복자의 밤 : 24일 저녁미사 후
③ 1일찾집 : 중·고학생회 (24일 저녁 7시부터)

6. 봉헌금 미납 속히 완납 바람
□ **지난주 봉헌금** : 334,663원

(서학동)

전화 ②27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본당 판공성사
17일<수>-1, 2, 3, 4만, 18일<목>-5, 6, 7, 8만
19일<금>-9, 10, 11, 12만, 20일<토>-13만·기타만
판공성사시간-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시간을 반별로
지킵시다
 2. 성탄때 영세받을 예비자 특별교리
16일부터 20일까지 (매일 저녁미사 후 7시 30분)
 3. 반장님 회의 : 공식미사 후
 4. 할머니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81년도 교무금 수입을 빠지지 말고 성의껏 합시다
 6. 다음주 전례담양
독서-① 박병환 ② 박형식, 신자들의 기도-조동근
- **지난주 봉헌금** : 131,445원 **교무금** : 214,000원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김나훈	원열근
보좌	신부	박	
사도	회장	박	

1. 본당 판공성사 일정 : 17일 오후 3시부터 구역 구분 없이 23일까지
 2. 영세식 : 23일 오전 10시, 대부모님을 모시고 오세요 유아 영세는 당일 오전 9시까지 나오세요
 3. 베소라 성서 강의 : 매주(화) 저녁 7시 30분~9시 30분
 4. 수녀님들을 위한 베소라 성서 특강
매주<월> 오후 2시~4시까지
 5. 각 단체의 신년도 활동계획 수립 : 각 단체 의장님께서는 신년도 활동계획서 20일까지 사무실에 제출
 6. 성령 기도회 :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7. 본당 꾸리아회합 : 오늘 오후 2시
 8. 성모회 릴레이 : 오늘 공식미사후 불우 이웃돕기 성미운둥-성탄을 맞이하여 불우한 이웃을 돕습니다
 9. 금주의 성경읽기 : 구약의-1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서 전체
 10. 교무금 납부의 달 : 12월은 교무금 납부의 달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 215,880원

(숲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광노

1. 예비자 세례식 및 신자 자녀 보례식 : 21일 오전 9시
 2. 성모회 릴레이 : 12월 21일 공식미사 후
 3. 학생 및 직장인 판공성사 : 매주 토요일 오후 주일 공식미사 전
 4. 성탄 성가연습 : 매일 저녁 7시 30분
 5. 숲정리 유치원 겨울방학식 : 12월 14일 오후 2시
 6. 숲정리 유치원 원아모집 안내
원서교부 : 12월 10일부터-유치원 사무실에서,
원서접수 : 12월 15일부터-유치원 사무실에서,
연락처-숲정리 유치원 사무실 전화 ③9567
 7. 신축기금 내주신 분
김귀권 (10만원), 장석인 (3만원), 송사차 (1만원)
- **지난주 봉헌금** : 227,925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조양	석정열
보좌	신부	양	열
사도	회장	양	열

1. 사도회 상임위원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탄 성가연습 : 매일 저녁 7시 30분
 3. 예비자 특별교리 : 15일 저녁 7시 30분
 4. 판공성사 : 오늘 저녁 7시미사로 시작
할머니·학생-15일~17일 오후 1시~7시
 5. 영세식 : 24일 오후 2시
유아영세 포함(신청서는 사무실에)
 6. 성탄맞이 대정식 : 20일 (토)
 7. 삼오사단 영세식 : 20일 오후 2시
- **지난주 봉헌금** : 315,340원

(전동)

전화 ③2222

주임	신부	김병영	유수홍
보좌	신부	김기성	유석홍
사도	회장	유석홍	

1. 자모회 : 공식미사 후
 2. 성화회 : 공식미사 후(정기총회)
 3. 판공성사표 분배 일정 (16일~19일)
16일-전동·서교동, 17일-동완산·서완산동, 18일-동교동·중앙동·경원동·다가동, 19일-남노송동·성심·기타동 (시간-오전 10~12시·오후 3시~5시)
 4. 예비자 집중교리 : 15일~20일까지, 저녁미사 후
 5. 영세식 : 21일<금> 공식미사 중에
 6. 다음주 전례담양 (21일)
아침미사 : 사회-박종구, 독서-① 이신홍 ② 김대원
공식미사 : 사회-이준영, 독서-① 김병오 ② 박도식
저녁미사 : 사회-김윤주, 독서-① 이진홍 ② 이승호
- **지난주 봉헌금** : 403,305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영배호
보좌	신부	조성호	
사도	회장	조성호	

1. 성우회 릴레이 및 정기총회 : 오늘 공식미사 후 (김성원·이중용 형제 유사)
2. 영세식 : 20일<토> 저녁 7시 30분
3. 영세예정자 특별교리 : 15일~19일 저녁미사 후
4. 17일 고교연합교사 응시생 미사 : 저녁 7시 30분 (아침미사 있음)
5. 성탄행사
① 주일 학교 : 23일 저녁미사 후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채수협

1. 판공 고백성사 : 오늘 부주교님, 다음 주일에는 부주교님과 해성 종교감 신부님 2분이 오셔서 고백성사를 주십니다
 2. 고백성사표는 평일에 오셔서 찾아가 주십시오
 3. 영세식 : 다음주 오후 1시 30분
 4. 두현리공소 일동 : 수녀원 신축금 (100,000원)
- **지난주 봉헌금** : 104,615원 **어린이헌금** : 4,850원 **교무금** : 242,000원